

시편 23편

150530, 4성화 190210.

Eb; 10마디, 998666

개역개정 기반 (2005-2015)	엘리프역 시편 기반 (180609-190220)
<p>하나님은 나의 목자니 내게 아쉬움이 없도다 푸른 풀밭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네</p>	<p>하느님이 내 목자시니 나는 부족한 것 없다네 풀 찬 초원 놓으시고 잔잔한 물가로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네</p>
<p>내 영혼에 생기 주시고 당신의 그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이끄시네 <i>소생케 하시네</i> <i>바르신 그 길로 이끌어 주시네</i></p>	<p>내 영혼 새로이 하시고 자신 이름을 위해 나를 정의의 길 이끄시네 <i>나를 살리시고</i> <i>바르신 그 길로 이끌어 주시네</i></p>
<p>내가 어두운 사망의 길 골짜기로 간다 하여도 함께 계셔 두렵 없네 당신의 지팡이 막대가 나에게 안심을 주시네</p>	<p>나 사망의 그늘 가득한 골짜기 속-을 걸어도 위험에 두려워 않네 나와 함께 하셔 막대 지팡이로 평안케 하시네</p>
<p>주는 내 원수 눈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 위에 기름부어 인정해 주시니 나의 잔 속에 마실 것이 넘치네</p>	<p>당신 내 적과 내 눈 앞에 날 위해 상을 차리시고 내 머리 위 기름부어 인정해 주시니 내 잔 마실 거리 넘쳐-난다네.</p>
<p>나의 삶에 선-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룩한 전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-- --멘.</p>	<p>나의 삶의 모-든 날에 당신 좋으심과 은혜가 나의 뒤를 따르리니 영원히 나-는 하느님의 집에 거하-리리라.</p>
	<p>○ 영-광이 성-부-와 성-자-와-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성삼위께 영광 아-- --멘.</p>